

주민 한마음 200년 이어온 솟대 세우기

“우리 마을 집대님은 화재예방 해주시고/ 우리 마을 집대님은 질병예방 해주시고/ 우리 마을 집대님은 풍년농사 기원하네.”

지난 5일 찾은 화순군 동북면 소사리에서 7km 떨어진 가수리 상가마을.

겹질을 벗겨 잘 다듬은 10m 길이의 소나무 끝에 한지를 물리고 나무오리 조립이 끝나자 주민들은 세 방향에서 줄을 당겨 솟대를 세웠다. 그리고 솟대 아래에 박은 손잡이를 이용해 오리머리 방향을 남쪽인 촛대봉(등잔술)로 향했다. 새로운 솟대 1기가 세워지며 마을입구에 모두 4기의 솟대가 자리를 잡았다.

◇가수리, 전통 산간문화의 원형 남아= 가수리 상가마을 주민들은 200여년째 매년 음력 2월 1일 솟대(집대) 1기를 깎아 세우는 전통(화순군 향토문화유산 17호)을 이어오고 있다. 이곳은 관광지에 우후죽순으로 세워져 있는 솟대와 달리 주민들이 동참해 공동으로 만들고 실제 생활과 밀착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 앞산이 화기(火氣)를 품고 있어 마을에서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해 1800년경부터 솟대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실제로 한국전쟁과 새마을운동 당시에 솟대를 세우지 않아 화재가 자주 일어 불끄러 다니기 바빴다고 입을 모았다. 오리는 불과 관련돼 있어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솟대 세우기는 오전 10시에 알맞은 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다. 주민들은 리기다 소나무 대신 육송(陸松)만을 고집한다. 마을에서 5분거리의 벌채중인 산에서 적당한 굵기의 소나무를 잘라 경운기를 이용해 마을로 옮겼다.

다음 차례는 소나무 겹질 벗기기와 다듬기. 다 자형으로 생긴 ‘깎냐’를 이용해 소나무 겹질을 벗긴다. 겹질을 벗겨야 더디 썩는다고 한다. 김정준(69) 이장이 오리 머리를 만들고, 김홍순(76)씨가 Y자형 나무로 오리 몸통을 만들었다. 오리머리에는 끌로 구멍을 뚫어 대나무 가지(오리수염)를 단다. 나무를 잘라 솟대를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농촌 고령화로 명맥 잇기 버거워= “사람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것도 어떨는지 모르겠어.”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마을의 전통 민속놀이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1970년대 이전 32호이던 것이 현재는 17호로 줄었다.

3~4년 전만 해도 주민 30~40여 명이 참여해 베어낸 나무를 직접 옮겼으나 이제는 경운기를 이용하고 있고, 풍물패가 앞장서고 주민들이 노

화순 동북면 가수리 마을

화재 예방하고 풍년 기원

“고령화에 전통 잇기 버거워”

동요를 부르며 나무를 옮기고 세웠던 풍경도 없어졌다. 또 기존에는 솟대 세우기가 끝나고 급줄을 치고 제물을 준비해 제를 올렸으나 올해는 이를 생략하고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뒤편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주민들은 여건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당산제와 함께 솟대세우기 역시 계속 이어져 마을이 발전하고 주민간에 화합하기를 바랐다.

김정준 이장은 “가수리 솟대에만 수염이 있는데 마을의 액(厄)을 물어서 버린다는 의미”라며 “올해도 풍년농사와 주민들이 아무 탈 없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솟대=북방 사머니즘에서 전래됐다고 하며, 삼한(三韓)시대 성역인 소도(蘇道)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나무나 돌로 된 새를 장대 끝에 엮는다.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메신저인 새(오리)를 통해 풍년과 마을 안녕을 기원한다.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상가마을 주민들이 지난 5일 오전 마을입구에 솟대를 세우고 있다.

가짜서류로 보조금 수령 ‘말뚝’

나주시 수역대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브로커 개입

市, 조합에 회수 요청

나주시가 발주한 수역원의 ‘친환경 농업 사업’에 전문 브로커가 중간에서 개입,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뚝이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난해 23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억5000만원이 배정된 ‘왕우림이 지원사업’의 경우 나주시가 7개 관내 조합을 통해 업자를 선정했으나 이 과정에 특정 브로커가 개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농민들의 반발에 따라 뒤늦게 알려져 나주시가

최근 실태조사를 거쳐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회수를 해당 조합에 요청한 상태다.

나주시 관계자는 “특정 농협이 보조금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채 유행 사업자를 선정, 19개 농가에 왕우림이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드러나 360여 만원을 환수하도록 요청한 상태”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의 이 같은 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브로커로 알려진 S(53)씨와 해당 농가들 등 은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K(58·나주시 동강면)씨는 “S씨가 유행 영농법인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만큼 수사가관이 낱낱이 조사할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농담이처럼 불어날 것이다”며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한 S씨의 여죄

가 많은 만큼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씨의 경우 민선 4기 신정훈 나주시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시장직에서 중도 낙마하게 된 공산화해단지 조성사업자로서 해당 사건으로 지난 2006년 8월 보조금 횡령혐의로 구속돼 3년형을 언도받아 복역한 뒤 출소, 이번 사건에 또다시 연루 돼 브로커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S씨는 이에 앞서 1995년도에도 2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또한 2001년에는 페타이어 조각열 이용설치 등의 명목으로 4억7500여 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결국 사업에 실패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 이번에는 특정 영농법인의 명의를 빌려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영암군 5급 이상 공무원들 군의원 제명 탄원서 파문

군정질과의 관련 군정 과정과 군수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삼호)에 대해 이번에는 군청 산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탄원서는 군청 보청 및 사업소, 읍·면장 등 5급 이상 공직자들이 대부분 연대서명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연명 탄원서란 점에서 공무원법 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탄원서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등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 김 의원의 폭언 때문에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탄원서는 군청 보청 및 사업소, 읍·면장 등 5급 이상 공직자들이 대부분 연대서명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연명 탄원서란 점에서 공무원법 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나주 신청사 개청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35년간의 광주 화정동시대를 마감하고 나주 봉황면 신청사를 열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나주시 봉황면 청사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7일부터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옥형태로 지어진 새 청사는 총 6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부지 1만 2059㎡에 분관동, 시험실동, 차고동 등 6개동을 갖췄으며 태양광을 이용해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친화적 시설로 운영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안군 실과장들에게 군수지시도 안들리나

“민원인 접근 쉽게 자리 재배치” 지시 불구 꾀꿍도 안해

부안군 행정이 총체적인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6일 부안군에 따르면 김호수 부안군수는 3주전 간부회의를 통해 비서실장 자리를 비서실 맨앞 좌석에 배치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과장 자리를 재배치해 부안군이 행정을 은폐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과장 자리를 재배치한 실과는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실과장들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군수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군의 복지부동 행태는 출장비 횡령으로 과장을 포함해 직원 27명이 검찰에 무더기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에 비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공무원 A씨는 “과장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도 변화된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접만 받으려 하기 때문에 지난번 횡령 사건도 터졌다”며 “30년 넘게 봉직할 행정전문가인 과장들이 민원인을 상대한다면 실과장의 일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실과의 구조상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리를 재배치하면 전화선으로 인터넷으로 이설 등 예산만 들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C과장은 “3월 전직원 월례조회를 갖고 투명한 공직풍토로 행정구현에 나서겠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행 행정업무 처리로 좀더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옛 전북도청 부지 전라감영 터 조선~현대의 문화공간 만들자”

전발연 주장... ‘천년광장’ 조성 상징문화 거점으로

옛 전북도청 부지에 자리했던 전라감영 터를 조선~현대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 발전연구원(전발연)은 지난 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상징이 될 전라감영터 부근은 조선~근대~현대에 이르는 문화자원이 흔재해 있는 만큼 시대별로 구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전라감영 터에서는 최근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1951년 소실)의 위치가 발견됐으며, 인근에는 전주객사(보물 제583호)와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전발연은 옛 전북도청 부지에 ‘천년광장’을 조성해 상징문화 거점으로 만들고 옛 도의회 건물을 보수해 문화창작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객사와 고사동 영华的 거리를 연계해 현대문화 공간으로서 ‘상징문화예술 창작거리’를,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 공간과를 연결하는 ‘소통의 거리’를 제시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이러이 일대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면 숙박할 수 있는 ‘감영 테마호텔’의 건립도 제안했다.

전발연은 총 2000여 원이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공동화한 옛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발연은 “전라감영 복원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것은 지금까지 뚜렷한 기반방향과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전라감영터가 조선에서 현대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열린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백사골 고로쇠 약수제 ‘제23회 지리산 백사골 고로쇠 약수제’가 지난 4일 남원시 신내면 부우리 반선 주차장에서 열렸다. 올해 약수제는 구제역과 시 확산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길놀이와 노래자랑, 약수 빨리 마시기 대회 등 이벤트 행사는 치르지 않고 터울림 농악공연과 약수 제례만 지냈다. 연합뉴스

올 수산업경영인 57명 선정

도 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선정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11년 수산업경영인 57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수산업 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44명·전업 경영인 11명·선도 우수경영인 2명으로, 전북을 3개 권역으로 분류해 ▲수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과 ▲수산질병센터

올해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사업성 검토후 개인별로 ▲어업인 후계자 5000만원 ▲전업 경영인 7000만원 ▲선도경영인 1억원까지 연리 3%·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도청 민원실 ‘일자리종합센터’ 10일 오픈

구직자가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북 일자리종합센터가 10일 도청 1층 민원실에 문을 연다.

일자리종합센터에는 취업전문 상담사와 공무원 등 10여명이 배치돼 여성과 장애인, 노인, 청년 등으로 나눠 구인·구직을 알선한다.

종합센터(1577-0365)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군산 입주기업 지원 ‘지식재산센터’ 문 연다

군산지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군산 지식재산센터가 오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내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센터는 군장·군산 국가산단 등 군산시 입주기업과 전북 서부권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

상으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자체 및 지역 발명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nogusu@

남원시 반달곰 사과나무 선착순 분양

남원시는 ‘반달곰 사과’를 널리 알리고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4월 30일까지 사과나무 400그루를 선착순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사과나무는 홍와와 후지 등 2개 품종으로 주당 10만원이다.

분양후 주요 영농은 농장주가

하게 되며 소비자가 영농 체험과 수확체험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사과나무에 개인명패를 부착해 주고 중점 관리해 가을철 수확기에 그루당 30kg을 최저 수량으로 정하고 부족한 사과물량을 보전해 준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정읍시 공무원 출장시 지역 택시 이용한다

정읍시는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을 덜고 신속한 민원처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주부터 공무원이 도내에 출장을 갈 경우 자가용 대신에 지정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개인택시조합 및 택시회사 11곳과 계약을 맺고 1일 5대

(대당 8만원)를 업무용 택시(분청 4대·제2청사 1대)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도내 이동은 무료다. 하지만 시간의 운행과 도내를 벗어나면 별도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ks@